정교회주보

제2594호
2026년 9월 13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케도니아를 가로지른 로마 가도. 바울로와 동역자들의 선교 여정을 묵묵히 간직한 길이다.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성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 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 191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봉)190
- 복음경 : 요한 3,13~17 …… 19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갈라디아 6,14)

[36회] 개척을 넘어선 돌봄의 여정

바울로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떠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다시 방문하며 신자들을 "여러 가지로 격려하였다."(사도행전 20,2) 그의 여행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는 열망(로마 15,20)과 이미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돌봄이 공존했다.

그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이동했고,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교회의 전통은 이를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치유하는 사목의 연속으로 본다. 바울로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개척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은 선교의 본질을 일깨운다. 교회는 선포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방문과 격려, 함께 걷는 동행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

삶과 신앙이야기 (2)

황경수 스테파노스 신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오면서 모아진 이성과 도덕, 윤리, 상식, 양심 등 우리 사람들의 지혜는 오늘의 세대에 이르러 그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동물의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단, 동물들은 육적인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동물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각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잘 알려진 종교만 해도 수십 개의 종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들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화해와 자비,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종단 안에 속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 명예 등 모든 탐욕의 어두움을 감추고 세속 권력과 야합하여,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민초들을 기만하며 역사를 지배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罪)의 속성은 너무도 그럴듯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정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오늘의 시대상을 읽다 보면 사탄의 권세가 양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소원하는 골방의 기도가 역사가 암울할 때 더욱 큰 소리로 하느님전을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구별에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수가 약 8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 10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힌두교, 불교, 유대교 등 신자들을 합하면 우리 지구인의 반 이상이 이러한 거대 종교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각 종교에 많은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도 전쟁과 내란에 시달리고, 한쪽은 폭염으로 고생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가뭄, 폭설, 홍수 등 우리 사람들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모든 역사적 인과들이 우리 지구인들의 눈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성, 도덕, 윤리, 상식, 양심 등보다 더 깊은 물음의 단계라고 정의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진정한 신앙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어쩌면 부끄럽지만, 온 세상의 종교도, 신앙인도 물질주의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력이 좋아야 100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서 100년은 촌음과 같은 시간대일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성 베드로 사도께서 남긴 사목 서신에 하느님의 시간대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내용에 현실감을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100년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영성으로 빚어지는 신앙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사랑으로 하는 작은 행위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하고, 투쟁하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실제로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피로가 쌓이면 당신더러 어서 포기하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를 지닌 것 모두가 다 반드시 거창하고 화려하고 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도리어 하느님은 흔히 단순한 일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를테면 아주 적절한 순간에 나온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 사람의 하루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도 모르게 드린 짧은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행위, 행동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일들을 충실히, 아주 성실히 행하십시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못할지라도 아름답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칭송과 같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 없이 지켜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주위로 얼마나 많은 빛을 가져와 비추었는지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느님은 인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루가 17,21)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됩니다.

바울로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사도행전 17,27-28)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나라는 그분이 만드신 물질적이고 영적인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에 옥좌를 차리시고 온 누리를 다스리시기”(시편 103,19) 때문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14일(월)
  십자가 현양 축일
* 9월 17일(목)
  성 소피아와 그녀의 딸들
  삐스띠, 엘삐다, 아가삐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수요일, 토요일 온라인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줌)을 통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영성 강론이 진행됩니다.

뽀르피리오스 성인의 책 『향기로운 삶과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신앙과 영성 생활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교회와 신앙, 영성 생활에 대해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식

일본 사목 방문

지난 주일(6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크리스토퍼 보제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성 알반 성공회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이날은 새 교회연도의 첫 주일로,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축복을 전하고, 새 교회연도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대주교 메시지가 봉독되었습니다.

부산 성당 결혼 성사

트리스틴 알렉산더 펭게니카 교우와 한은아 소티리아(알렉산드로스 신부 차녀) 교우의 결혼성사가 9월 5일(토) 부산 성모 희보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를 비롯하여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 박인곤 요한 신부, 크리스토퍼 욘커 보제가 공동 집전하며 두 사람을 위한 축복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하객들이 함께 자리하여 두 사람의 기쁨을 나누고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 성당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비의 성사 이후에는 준비된 뷔페 만찬을 함께하며 축하연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10월 3일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서울 성당의 장년회(하느님의 일꾼들)와 청년회(신데즈모스)에서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청소와 제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참여하실 분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성당 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 날짜: 9월 18일(금)-20일(일: 이른 아침 서울로 출발)
- 숙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복지관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